

여수시, 실시간 해수 방사능 측정...전국 기초지자체 첫 시행

선박 기관실에 검출기 설치...핵종·농도 현장서 실시간 확인 일 오염수 방류 따른 수산물 소비 위축·시민 불안 해소 기대

여수시가 전국 기초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실시간 해수 방사능 측정시스템'을 구축해 23일 시험 운영을 했다.

'실시간 해수 방사능 측정' 체계 구축은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수산물 소비 위축과 시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 시스템은 한국원자력연구원 연구개발했다. 선박 기관실에 검출기를 설치해 기관 냉각수로 방사능을 실시간 측정하는 방식이다.

바닷물을 길어와 육지 분석실로 옮겨 측정하는 기존 방식과 달리 바다에서부터 선제적으로 방사능 감시를 하며 정확도를 높였다.

여수시 소속 어업지도선은 해수 방사능 핵종과

농도를 실시간으로 현장에서 확인하고 무선 통신을 통해 육지에 있는 상황실로 즉각 전송한다.

방사능 측정 결과는 시내 주요 전광판과 여수시 누리집에 일주일에 한 번 이상 게시할 예정이다.

여수시는 23일 정기명 여수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어업지도선 전남 202호에 설치된 '실시간 해수 방사능 측정시스템'을 시험 운전했다.

이 어업지도선은 가막만 해역을 1시간가량 운항하며 해수 측정을 했다.

측정 결과 어업지도선이 길어 올린 바닷물에서는 방사능 수치가 '0'에 가까운 것으로 나왔다.

여수시는 예비비 1억원을 들여 지난 8월 전국 기초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실시간 해수 방사능

측정시스템을 갖췄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연구 목적으로 지난 2021년 충남, 올해 초 제주 해역에 이 장비를 설치했지만, 기초지자체가 직접 나서 장비를 마련한 것은 처음이다.

여수시는 주 1회 이상 가막만과 여자만 등 여수 해역 일대에서 실시간 방사능 측정을 한 뒤 그 결과를 공개한다.

시험 운전 등 준비를 마친 뒤 오는 12월4일 시스템 설치를 완료하고 같은 달 누리집 공개를 진행할 예정이다.

주진환 여수시 수산경영과 팀장은 "이날 해상 방사능 측정 시험 운영을 한 결과 여수가 막대한 안전한 정정해역임을 재차 확인했다"며 "독자적 해수 방사능 감시로 수산물 먹거리의 안전성을 확보해 어업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시민들의 불안감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여수=김창화 기자·동부취재본부장 chkim@



여수시가 배에서 바닷물을 길어 방사능을 실시간 측정하는 장비를 전국 기초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설치해 23일 시험 운영을 했다. 정기명(왼쪽) 여수시장이 측정 장비를 살펴보고 있다. (여수시 제공)

보성군 '검백면 기초생활거점사업' 용역 업체 선정 논란

주민 "농어촌공사 직원 심사위원 참여 등 공정성 훼손" 민원 보성군 "입찰공고 자격요건에 부합...위법·불공정 사유 없어"

보성군이 추진하는 '검백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지역역량강화용역' 업체 선정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검백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은 이미 조성된 검백면의 기초생활 가능시설과 서비스를 배후마을로 전달하는 2단계 사업으로 총 20억원이 투입되는 소프트웨어 사업이다.

보성군에 따르면 한 주민이 "해당업체는 협상대상 1순위 업체의 책임 연구원이 동종업계 업체의 대표를 맡고 있으면서 동시에 이 업체의 연구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이중 등록 상황인데, 이 연구원이 한국농어촌공사 직원으로 재직 중 퇴사했으나 같은 부서에 근무했던 공사 직원이 제안평가 심사위원으로 참석하는 등 공정성이 심각히 훼손됐다"며 대통령실과 국민신문고 등에 민원을 제기했다.

민원을 제기한 A씨는 "1순위 업체와 책임연구원이 대표로 있는 업체는 이미 수년간 하도급 계약을 맺고 있는 관계로 실제 1순위 업체에 근무하지 않으면서 이름만 올려놓았다는 것은 업계에서는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며 "책임연구원이라는 사람은

아직도 농어촌공사와 올해만 4건의 수의계약을 맺는 등 밀접한 관계인데도 공사 직원을 심사위원으로 선정했다는 것 자체가 입찰과정의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밝혔다.

A씨의 민원에 보성군 담당자는 "입찰공고에 검직과 관련된 내용이 없고 농어촌공사 평가위원역시 자격요건에 부합하다"며 "위법성과 불공정 사유가 없어 절차대로 처리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공고서에 기재되지 않으면 다 합법적이고, 해당 평가위원이 1순위 업체 책임연구원과 이해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기초조사도 하지 않은 엉터리 처분이다"며 재차 민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보성=김용백 기자 kyb@kwangju.co.kr

순천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위촉

순천시는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위원 12명을 지난 21일 위촉하고 위촉장을 건넸다. 이들의 임기는 2년이다.

당연직 위원장은 유현호 순천시 부시장이 맡고, 송승현 녹색에너지연구원 실장이 부위원장으로 뽑혔다.

위원회는 에너지, 산업, 환경 등 각 부문 전문가 12명으로 구성됐다.

앞으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주요 정책에 대해 심의·의결하게 된다.

이날 위촉식 뒤에는 순천시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 용역 중간보고회를 열어 그간 추진 상황과 방향을 점검했다.

순천시는 보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해 상위 계획과 연계해 실효성 있는 종합계획을 연말까지 세울 예정이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

'영·호남 관문' 광양시 다압 신원회전교차로 정비

광양시가 다압 신원회전교차로 정비를 마무리했다고 23일 밝혔다.

다압 신원회전교차로 정비사업은 광양시와 하동군을 잇는 '영·호남 관문' 신원회전교차로 경관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했다. 다압 신원회전교차로는 광양 매화축제로 매년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다.

이곳에는 조경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해 광양을 덕레리 녹지에서 캐넌 소나무를 심었다.

나무의 밑동 지름이 60cm에 달하고 붉은 나무

껍질을 지닌 웅장한 적송(赤松)이다. 소나무 주변에는 잔디와 부시 측백 25그루를 심었다. 기존에 심어진 소나무는 다압면사무소 정담센터 화단에 옮겨졌다.

김재복 광양시 녹지과장은 "도시 외곽 산림과 기존 녹색 인프라를 연결해 녹색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다양한 녹지공간 조성을 통해 시민들에게 쾌적한 환경과 아름다운 가로경관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고흥군, 녹동항 드론쇼 25일 올 마지막 공연

드론 1000대 등 볼거리 제공

월 간의 여정을 끝내는 폐막 공연을 이날 오후 7시부터 녹동 바다정원 무대 상공에서 펼쳐진다고 밝혔다.

기존 녹동항 드론쇼 규모(500대)의 2배인 1000대 드론의 군집 비행으로 고도의 기술과 입체감 있는 빛의 예술적 작품을 완성하는 최정상급 볼거리가 제공된다.

고흥군은 5월부터 시작된 드론쇼 공연이 7개

고흥군 도양읍 녹동항 소록대교 야경을 배경삼아 매 주말 밤바다 환상적인 공연을 펼쳤던 '2023 고흥 녹동항 드론쇼' 공연이 25일을 끝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린다.

고흥군은 5월부터 시작된 드론쇼 공연이 7개

/고흥=주각중 기자 gju@kwangju.co.kr

구례군 '농촌진흥청 농촌교육농장 경진대회' 대상 배출

'구례 지리산과 하나되기 농장-산수유 생태연못'

'치유 농업'을 미래 먹거리로 내건 구례군이 '농촌진흥청 농촌교육농장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배출했다.

농촌진흥청이 최근 주최한 농촌교육농장 교육 중앙 경진대회에서 대상에 이름을 올린 수상자는 '구례 지리산과 하나되기 농장'(대표 강승호)이다.

이 농장은 '산수유나무 아래 생태연못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참가자들은 유기농 산수유 재배 농업환경을 이용한 연못 수서곤충 생태를 체험할 수 있다. 학교 교과과정과도 연계돼 학생들의 자기 주도적 활동을 통한 교육과 농업의 융복합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강승호 지리산과 하나되기 대표는 구례군 1호 치유농업사로 선정되기도 했다. 그는 '건강 산수유 연잎밥 체험 행사'를 개발해 구례의 경로당과 요양원 등에서 치유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구례군은 농촌교육농장을 육성해 우수한 체험 활동을 개발할 방침이다.



구례 '지리산과 하나되기 농장'에서 어린이들이 생태 체험을 하는 모습. (구례군 제공)

강 대표는 "구례의 농업 유산인 산수유를 통해 지역 아이들이 자연과 교감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을 개발해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구례=이진택 기자 lit@kwangju.co.kr

건물·주택 지붕공사, 스틸방수, 리모델링

건축시공, 설계, 견적, 리모델링, 상담문의

